

문학석사학위논문

# 영어 전치사 ON의 의미와 구조분석

지도교수 박 순 혁

이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제출함.



2005년 2월

부경대학교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최 경 민

# 최경민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4년 12월 23일

주 심 문 학 박사 배 재 덕



위 원 교 육 학 박사 조 윤 경



위 원 언 어 학 박사 박 순 혁



# 목 차

Abstract .....	i
제 1장 서론	
1.1 연구목적 .....	1
1.2 구 성 .....	2
제 2장 전치사의 정의와 on의 핵의미	
2.1 전치사의 정의 .....	4
2.2 전치사 on의 핵의미 .....	6
제 3장 전치사 on의 용법	
3.1 가시적 용법 .....	9
3.2 비가시적 용법 .....	15
3.3 관용적 용법 .....	24
3.4 부사적 용법 .....	25
제 4장 on의 통사적 분석	
4.1 목적어와의 관계 .....	30
4.1.1 유관사 명사보어 .....	30
4.1.2 무관사 명사보어 .....	33
4.2 복합 전치사구 .....	36
4.2.1 on의 재분석 .....	37
4.2.2 on의 의미역 .....	40
4.3 동사와 on의 관계 .....	43
제 5장 결론 .....	49
참고문헌 .....	51

## 그림 목차

그림1. 전치사의 기본의미 .....	5
그림2. 전치사 on의 의미 .....	7
그림3. 공간에서의 접촉 관계 .....	9
그림4. 입체적 수평적 접촉관계 .....	12
그림5. X와 Y의 포함관계 .....	15
그림6. 시간선상의 접촉 .....	16
그림7. 시간선상의 접촉 .....	17
그림8. X와 Y의 비중도 .....	19
그림9. 제자리 명사 .....	32
그림10. 논항을 포함한 제자리 명사 .....	33
그림11. 명사의 융합 .....	34
그림12. 논항을 포함한 전치사구 .....	35
그림13. 전치사의 격 부여 .....	36
그림14. 전치사의 재분석 .....	38
그림15. 복합 전치사의 격 부여 .....	40
그림16. 접사로서의 on 구조 .....	47
그림17. 동사와 명사의 이동 .....	48

# The Semantic and Syntactic Analysis of the Preposition "ON"

Kyoung Min Choi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Prepositions have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difficult elements in English. This difficulty is due largely to the fact that they convey various meanings, which can hardly be identified from their basic meaning. In this thesis we will concentrate on the preposition *on* to discuss what its basic meaning is, how its meaning is extended, and which syntactic rules are involved in the semantic account.

To begin with, we basically assume that prepositions have their own cognitive meanings which are derived from their core meaning. Based on this assumption, the present thesis views the preposition *on* as having the notion of 'contact' and 'linking' as its core meaning. The preposition *on* is first divided into two types, depending on the visibility of the entities involved. When the entities referred to as the arguments of the preposition are visible, their physical relationship can be witnessed such that the notion of 'contact' can be observable. Suppose now that the entities are not visible. Then their relationship can be recognized only when the meaning of the preposition *on* is appropriately extended.

This thesis shows that the meaning of the preposition *on* has been

extended in a systematic way. This implies that whatever meaning the preposition carries, its core meanings, 'contact' and 'linking' are always maintained. We further employ the syntactic analyses, incorporation and reanalysis, to prove that the semantic extension of the preposition *on* is supported by the proper syntactic account.

# 제 1장 서론

## 1.1 연구 목적

전치사는 영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전치사의 발음과 기본 의미뿐만 아니라 확대된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전적 의미로는 그 다양한 활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기본의미에서부터 확대된 의미로의 체계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 전치사 중에서 사용 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on*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i)먼저, 전치사 *on*의 핵 의미(core meaning)를 설정하고, (ii)다양한 활용을 소개하면서 핵 의미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정리, 분석하며, (iii)이러한 의미적 분석을 통사 규칙으로 증명하는 데에 있다.

기본적으로 원어민들은 모국어의 전치사를 의미와 기능면에서 모두 공통된 규칙성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인간에게 지각작용과 범주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기동(1998, p. 14)은 “여러 가지 문장에 쓰이는 어느 한 전치사의 의미는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어떤 공통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두뇌 속에서 반복되는 인지 과정을 통해서 그 지식이 확대되는 과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 전치사 *on*의 핵 의미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시적인 면과 추상적인 면으로 나누어 그 활용을 살펴본

다. 이 과정에서 전치사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간단한 평면적 도안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의미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전치사 *on*의 통사적 구조는 전치사구 안에 나타나는 논항(argument)에 의해 결정된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전치사가 목적어 명사구, 즉 내부논항(internal argument)을 취하는 경우이다. 전치사 *on*은 또한 내부논항과 지정어(specifier) 자리에 외부 논항(external argument)을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VP Subject Hypothesis)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동사와 마찬가지로 전치사가 내부 논항과 외부논항에 모두 의미역(Thematic role)을 부여할 수 있다. 전치사구 동사의 보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동사와 전치사의 기능이 병합되어 상호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전치사 *on*의 의미 확대 과정이 체계적이며, 핵 의미인 ‘접촉’과 ‘근접’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통사적 규칙을 활용한다. 전치사의 내부 논항 명사구가 무관사로 나타날 때와 전치사구가 동사와 보어로 사용될 때, 전치사구의 핵과 명사구의 핵, 그리고 전치사구의 핵과 동사구의 핵이 결합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핵 이동(head movement)을 수반하는 통사적 융합(incorporation) 규칙을 적용한다. 또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on*의 경우를 위해서는 재분석(reanalysis) 규칙을 적용한다.

## 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전치사의 일반적 정의와 이론적 배경, 그리고 전치사 *on*의 핵 의미를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전치사 *on*의 의미 확대과정을 가시적 그리고 비가시적 용법 중심으로 논의하며, 이와 함께 관용적, 부사적 용법을 다룬다.

제 4장에서는 *on*의 내부 구조 분석을 위한 통사적 규칙을 적용하며, 동사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한다.

제 5장에서는 상술한 의미적, 통사적 특성을 정리하여, 의미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음과 통사적 규칙성에 따른 결론을 제시한다.

## 제 2 장 전치사의 정의와 핵 의미

### 2.1 전치사의 정의

전치사는 문장에서 두 요소를 연결시켜 이 둘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의미와 기능을 하는 문법범주가 된다. 여기에서 전치사가 연결해 주는 두 요소란 전치사를 사이에 두고 표현되는 두 명사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전치사에 후치하는 명사 논항(argument)을 'Y'라 명하고 전치사에 선행하는 명사 논항을 'X'라 한다.

전치사구의 표현을 '전치사+명사'로 표시함과 동시에 'X+전치사+Y'로도 표시한다. 전치사의 위치는 뜻풀이와 같이 특정 품사 앞, 다시 말해 명사 또는 명사절(목적어)앞에 놓이는 것이 원칙이나, Hornstein and Weinberg(1981, pp. 55-91)와 Erteschik-Shir(1976, pp. 147-170)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관계문이나 의문사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전치사 좌초(Preposition Stranding) 현상에서는 후치되는 경우도 있다.

전치사가 두 명사를 연결할 때 어떠한 상태에서 두 요소를 연결하느냐에 따라 전치사의 역할이 다양하게 나누어지는데, 주어진 상황에 따라 공간적인 관계를 표시하기도 하고, 시간적인 관계를 표시하기도 하며, 그 외의 관계를 표시하기도 한다. 또한 Langacker(1991, p. 47)는 문맥 속에서의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 하므로 전치사의 의미를 간략하게 단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의어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면서 시간적, 공간적 의미 이외에 추상적인 은유의 확장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Sweet(1995, p. 153)는 전치사의 인과적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는 공간

적 의미의 은유적인 확장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사고하고 경험하고 행동하는 양태가 다분히 추상적인 면이 있으며, 이를 은유의 문제라고 보았다. 단순히 정의 내리기에는 미묘한 뜻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지만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공통된 전치사의 정의는 두 요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앞으로 등장할 많은 전치사의 용법을 핵 의미를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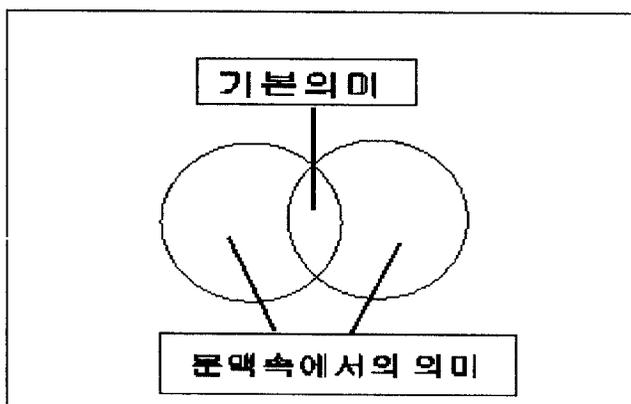


그림1. 전치사의 기본의미

위의 그림 1은 다의어로서 전치사가 가지는 많은 의미들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즉, 문장이라는 배경 아래 가변성을 가지고 뜻이 변하는 전치사라 할지라도 그 핵 의미를 기준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2 전치사 *on*의 핵 의미

전치사 *on*의 핵 의미는 두 물체가 접해 있음을 나타내며, 또한 두 물체의 근접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전치사 *on*을 사이에 두고 두 명사가 마치 행위자(Agent)와 장소(Location)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때 두 물체간의 관계가 전치사 *on*에 의해 표현이 된다. 주어진 요건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겠지만 이들 둘 사이의 근원적인 관계는 ‘접촉’과 ‘근접’으로부터 그 의미가 출발한다.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1989, pp. 113-117)에서도 다음과 같이 전치사 *on*의 핵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General Sense: The preposition expressing primarily the relation of contact with or proximity to the surface of anything and so that of being supported or upheld by it; also , from the earliest times, expressing motion to or towards such a position.

또한 에센스(1992, p. 1584) 영한사전에 따르면 “전치사 *on*이 ‘접촉’을 나타내며 그 접촉면은 상하 좌우 어느 것이든 관계없다”고 기술한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명확히 나타내는 한 가지 예는 a fly walking on the ceiling ‘천장을 기고 있는 파리’이며, 여기서는 ‘~의 위에’라는 번역은 분명히 적당하지 못하다고 표현되어있다. ‘접촉’을 나타내는 이 *on*의 성질에서, ‘절박’, ‘종사’, ‘동시성, 일시(日時)’, ‘기초’ 등의 비유적 뜻이 파생하게 되며, 이런 점에서 *on*은 ‘떨어짐’을 나타내는 *off*와 정반대이고, *get on/get off* 등의 관용구에도 형식과 의미의 짝을 이루는 것이 많다고 기

술한다.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분명 전치사 *on*은 전치사 뿐만 아니라 부사의 기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절동사(phrasal verb)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단순화 작업을 하기 위해, 전치사 *on*의 근원적 의미를 <X on Y> 라는 도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접촉과 근접 관계를 기본형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변이형으로 가시적, 비가시적 영역을 접촉과 근접으로부터 의미를 유추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 전치사 *on*의 가시적인 영역을 물리적인 접촉과 근접의 관계로 표현하고, 이러한 접촉과 근접이 <X on Y> 또는 <Y on X>의 관계에서 두 물체간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전치사 *on*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며, 전치사 *on*의 비가시적인 영역은 물리적인 접촉이 아닌 형이상학적인면과 개념상의 연결 혹은 추상적인 연결을 <X on Y> 또는 <Y on X>의 관계로 표현한다.

아래의 그림은 전치사 *on*의 기본 의미를 모아서 나타낸 그림이며, 본문에서 유추해 나갈 내용들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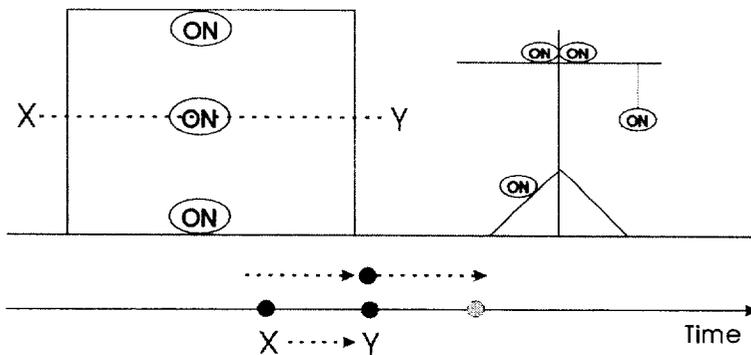


그림2. 전치사 *on*의 의미

그림 2가 전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두 물체 A 와 B가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 근접, 그리고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치사 *on*의 핵 의미가 적용되면, 전치사가 사용된 환경이 비가시적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 그림이며, 제 3장 *on*의 용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 제 3장 전치사 *On*의 용법

### 3.1 가시적 용법

두 물체 X 와 Y의 관계가 전치사 *on*의 핵 의미를 기준으로 물리적인 접촉과 근접을 가지고 표현되는 경우이며, 이때 접촉의 관계가 ‘~위에’라는 단순의미에서 파생되어 상.하.좌.우 및 매개체로서의 연결로 확장되며, 크게 공간과 시간 그리고 그 밖의 용법으로 쓰인다. 어떠한 형태로든 핵 의미에서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며, 전형적인 전치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법으로 볼 수 있다.

*on*의 가시적 용법은 전치사 *on*에 의해 연결될 수 있는 두 물체가 공간상에서 접촉해 있는 경우로서 <X on Y>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가 상.하.좌.우 및 매개체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다.

<X on Y>의 관계를 공간적 접촉 형태로 분류하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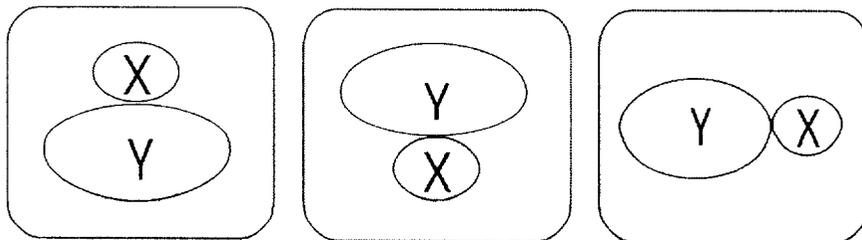


그림3. 공간에서의 접촉 관계

## 1) 상.하 관계

- (1) a. There are some flowers on the table.  
b. The dog is on the floor.  
c. He rides on the bicycle.  
d. The cat on the roof is not ours.

상기의 예문 (1)은 모두 접촉의 관계가 ‘~위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문들이다. 즉, X가 Y위에 있으며, X는 Y에 어떠한 힘을 가하고 있는 관계이고, Y는 X의 힘을 지탱하고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접촉의 관계가 모두 상.하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역전의 관계를 표시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X on Y>의 관계가 <Y on X>의 관계로 표시되면서 일차적인 의미 확장을 시작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 2) 상.하 관계(역전)

- (2) a. A fly walking on the ceiling.  
b. There is a bat on the cave.  
c. Many apples are hanging on the tree.

상기의 예문들은 모두 ‘접촉’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X와 Y의 관계가 ‘~위에’라는 의미에서는 역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전치사 *under*의 의미에 더 근접한 듯이 보이는 예문들이지만 *on*의 근원적인 ‘접촉’의 의미로 본다면 여전히 표준적인 예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2a) ‘천장을 기고 있는 파리’는 천장의 아래 표면에서 동적인 움직임 을 나타내고 있지만 *on*의 의미로 뜻을 유추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b) ‘동굴에 박쥐가 매달려 있다’는 다소 혼돈을 가하고 있는 예문이지만 특정 상태의 지속적인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적으로 박쥐가 동굴에 매달려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c) ‘많은 사과가 그 나무에 달려있다’는 또 다른 *on*의 확장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과가 나무에 접촉해 있다’라기 보다는 나뭇가지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접촉과 연결이라는 핵 의미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미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로 볼 수 있겠다.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자.

### 3) 좌.우 관계

(3) a.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b. The sign-board is on the door.

X와 Y가 특정 높이를 가진 입체적인 상태에서 측면으로 접해있는 경우로 연상되는 경우이다. (3a) ‘그림 하나가 벽에 걸려 있다’는 상태를 나타내면서 입체적 측면을 서술하고 있다. (3b) ‘표지판이 문에 달려있다’ 역시 입체적 접촉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좀더 나아가서 평면적인 접촉의

상태를 살펴보자.

- (4) a. His house is on the river.
- b. There is a little village on the side of the boarder.
- c. The factory has its place on the way to Seoul.

(4a)의 예문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의 집은 강가에 있다’ 와 ‘그의 집은 강위에 있다’라는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정밀한 해석을 찾을 수 있다. (4b) ‘작은 마을이 국경선에 접해있다.’는 수평적 접촉을 나타내며, (4c) ‘그 공장은 서울로 가는 길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수평적 접촉과 더불어 선상의 접촉을 나타내면서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경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 4로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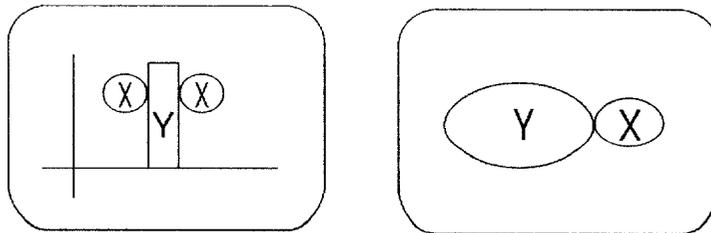


그림4. 입체적 수평적 접촉 관계

위의 예문(1)-(4)은 모두가 공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전치사의 의미를 평면적,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공간적인 배경을 좀 더 확장시켜 보자.

앞에서 살펴본 (1c) 예문을 다시 살펴보자.

(1) c. He rides on the bicycle.

(1c)에서 X가 Y에 힘을 가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은근히 교통 수단으로서 전치사 *on*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간적인 접촉으로 bicycle에 접해 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의존의 관계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교통수단으로서 전치사 *on*이 사용된 경우이다.

4) 교통수단의 경우

- (5) a. She even rides on the cycle.
- b. They travelled on the train.
- c. We are on the boat.
- d. The luggage is still on the plane.

위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치사 *on*의 핵 의미를 적용했을 경우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교통수단으로서 사용될 경우 다른 전치사 *in*, *by*와 *on*이 사용되어지는 환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중 *in*과 *on*의 사용에 있어서 구별이 미세하게 존재해 보인다. 전치사 *on*의 상·하 관계에서 의미가 확장 되면서 X와 Y가 의존의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X와 Y가 규모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때 비교적 크게 생각되는 교통수단에 비추어 X가 Y에 의존하고 있음을 연상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공간이 좁은 승용차에는 전치사 *in*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좀더 현대적 감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고전적 의미의 수단으로 사용되던 *on*이 새로운 사물의 자동차에 주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5) X, Y가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 하는 경우

- (6) a. He is standing on his head.  
 b. They made small tattoo on their arms.  
 c. There are some lines on his forehead.  
 d. On his face was filled with happy smile.

(6)의 예문들은 ‘접촉’이라는 기본 의미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확장된 의미들을 이루고 있다. 두 물체간의 접촉을 기준으로 보는 시각에서 변형 의미가 들어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6a)의 경우 ‘그는 그의 머리 위에서 있다’는, 다시 말해서 물구나무를 서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은유적 양상을 띠고 있다. (6b)의 경우 ‘그들은 그들의 팔에 조그만 문신을 만들었다’하여 X와 Y가 별개의 두 물체가 아니라 동일한 물체의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 (6c,d)의 예문 역시 동일 물체에 나타난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6c)의 경우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있다’ (6d)의 경우 ‘그의 얼굴은 행복한 미소로 가득 차 있다’ 는 표현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예문들은 어느 정도 은유적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해석함에 있어서 주

의를 요하는 예문들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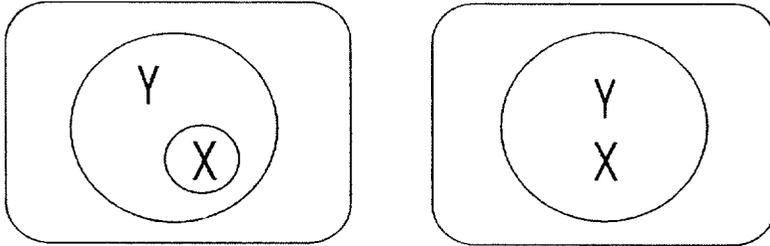


그림5. X와 Y의 포함관계

### 3.2 비가시적 용법

두 물체 X와 Y의 관계가 전치사 *on*의 핵 의미를 기준으로 물리적인 접촉과 근접을 가지고 표현되는 가시적인 경우에 반해서 여기서는 좀 더 의미가 확장된 경우를 보여준다. Heaton(1965)과 Herskovits(1986)등은 접촉의 의미를 공간상의 접촉만이 아니라 시간과 영향 등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전치사 *on*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두 물체 <X on Y>가 시간적인 접촉과 연결을 나타내는 경우를 비가시적인 용법으로 표현되며, 시간선상의 구분을 통하여 X, Y를 연결시키면서 사용된다.

#### 1) 시간적 관계

(7) a. They arrived at Busan on Saturday.

- b. The man who has a great ability was born on a sunny day in spring.

시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접촉과 연결의 의미는 계속 된다. 다만 X와 Y의 구분에서 다소 확장이 있는 것이다. (7a)에서 ‘그들은 토요일에 부산에 도착했다’의 예문에서 장소와 시간을 전치사 *on*을 사용해 연결한 경우이다. 그리고 *on Saturday* 보다 좀더 큰 개념의 시간을 전제로 하고 *Saturday*를 시간선상에서의 접촉으로 보는 관점이다. (7b)예문의 경우 ‘큰 능력을 가진 그 남자는 화창한 봄날 태어났다’는 전치사 *in*과 *on*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의미적으로 큰 영역을 전치사 *in*으로 사용하고 부분을 전치사 *on*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의 접촉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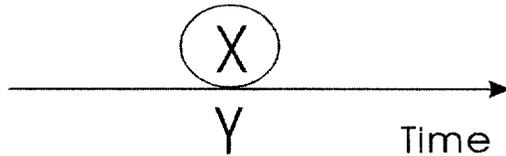


그림6. 시간선상의 접촉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 시간과 사건의 접촉

- (8) a. On seeing me, he ran away.  
 b. On his return, our family greeted him warmly.

c. On her death, her house was sold.

상기의 예문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시간을 구분하여 연속적인 동작의 상태로 볼 수도 있고, 시간과 사건의 연속으로 볼 수도 있다. (8a)의 경우 ‘나를 보자, 그는 달아났다’에서 눈으로 본 시간과 달아나는 시간을 시간적 연속으로 볼 수도 있고, 눈으로 본 시간과 달아나는 사건의 연속 동작으로도 볼 수가 있다. (8b)의 경우 ‘그가 돌아오자, 우리 가족은 그를 따듯이 맞이했다’는 시간선상의 사건과 사건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8c)의 경우 ‘그녀가 죽자마자, 그녀의 집은 팔렸다’에서 죽은 사건과 집이 매매된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

위의 예문은 순차적인 행위의 발생을 보여주고 있으며, 좀더 확장하여 동시 발생적인 두 사건의 경우도 전치사 *o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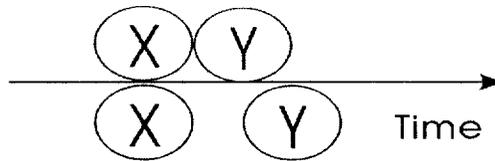


그림7. 시간선상의 접촉

그림 7은 사건의 연속성의 두 가지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 3) 동시 발생적 사건

(9) a. On my way home, I met a friend of mine.

b. What's happen on the way to school?

위의 예문은 상대적으로 큰 행위 속에 작은 사건이 연결되어 있으며, 두 사건이 동일 시간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9a)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나의 친구를 만났다'에서 집으로 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집으로 가는 시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친구를 만난 것이다. 즉, 두 사건중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 (9b)에서 '학교로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니?'라는 예문 역시 학교로 가는 사건이 도중에 발생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이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동시 발생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다.

(7)-(9)의 예문들을 통해서 전치사의 사용을 <X on Y>로 가정하고, 이때 X 와 Y의 대상들을 확장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9)의 예문은 두 사건 중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두 사건 간에 비중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비중의 차이가 있음을 이용하여, 또 다른 확장을 해 보도록 하자. 즉, X, Y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붙어 있는 관계가 되며, 이것은 또다시 <X on Y>가 의존과 영향의 관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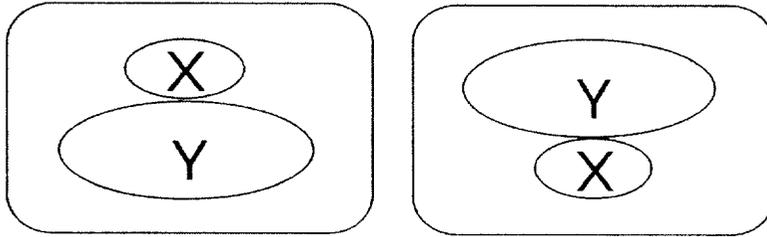


그림8. X와 Y의 상대적 비중

그림 8은 X, Y가 서로 다른 비중을 가지고 압력을 가하거나, 또는 떠받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4) 의존

- (10) a. On a rainy day in Africa, the puma lives on water.  
 b. The family who live in Mt. Halla live on a few dollars a month.  
 c. You can trust on him.  
 d. They depend on this job for a living.  
 e. I always count on you.  
 f. The business man never rely on his workman.

위의 예문들은 X와 Y를 다른 비중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존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10a)의 경우 ‘우기가 되면, 퓨마는 물에 의존하여 산다’는 식량의 대한 의존을 표현하고 있다.

(10b)의 경우 ‘한라산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한달에 겨우 몇 달러로 생활하고 있다’는 의존의 대상이 몇 달러로 표현되고 있다. (10c-f)의 경우는 모두가 숙어로 간주되는 경우인데, 의존에 있어 전치사 *on*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c)의 경우 ‘당신은 그를 믿을 수 있다’이며, (10d)는 ‘그들은 그들의 생계를 이 직업에 의존한다’로 표현하고 있으며, (10e)는 ‘나는 항상 당신에게 의존한다’이며, (10f)는 ‘그 사업가는 결코 그의 직원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다.

위의 예문들에서 X와 Y의 비중에 따라 의존의 관계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긍정적인 사고로서 ‘의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경우에는 ‘공격’의 관계에도 사용될 수가 있다. 즉, X와 Y가 다른 힘의 접촉으로 존재함으로써 압력을 가하는 관계로 발전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 5) 공격의 경우

- (11) a. The police couldn't jump on the robber.  
 b. The tiger rounded on the wolf.  
 c. Our team were attacked on by some gang in the square.

위의 예문들은 모두 전치사 *on*을 공격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의미 확장이 많은 듯하지만, 이기동(1998)은 의존의 경우와 유사한 개념으로 본다. 즉, (11a)는 ‘경찰은 도둑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하여 *jump on*을 사용하여 전치사의 목적어를 공격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11b)는

‘호랑이는 돌아서 늑대를 공격했다’하여 *rounded on*을 돌아서서 공격한다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으며, (11c)는 수동구문으로 ‘우리 팀은 광장에서 갱들에게 습격당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11a-c) 예문 모두 핵 의미인 ‘접촉’과 ‘연결’의 개념에서 떨어져 보이나, 순차적으로 확장을 이루어 가면서 나타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서론에서 잠시 X와 Y의 비중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이러한 비중도가 의미를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비중도에 따른 또 다른 전치사 *on*의 의미를 찾아보자. X와 Y가 서로 다른 비중으로 의존과 공격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X와 Y가 다른 하나에 근거하여 표현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의 예문은 어떠한 이유나 근거가 되는 경우를 표현한다.

6) 이유와 근거

- (12) a. Our soccer team congratulated themselves on our victory in final game.  
 b. The pretty girl prides herself on her good appearance.  
 c. There is a heavy charge on the goods.

위의 예문들은 이유나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전치사 *on*이 사용된 경우이며, 어느 정도의 관념적인 요소를 가지고는 있으나, ‘접촉’과 ‘연결’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12a)에서 ‘우리 축구부는 결승전 승리를 자축했다’는 승리와 자축을 연결하고 있다. (12b)에서 ‘그 예쁜

소녀는 그녀의 좋은 외모를 자랑한다'하여 자랑과 좋은 외모를 연결시키고 있다. (12c)에서 '그 상품은 많은 비용을 포함한다'하여 상품과 비용을 연결시키고 있다. 물론 여기서 Y는 모두 X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로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3) a. News always should be reported on fact.

b. Don't push your friend on your will.

(13a,b) 예문을 살펴보면, 전치사 *on*이 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함을 알 수 있다. (13a)의 경우 '뉴스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되어야 한다'하여 사실과 뉴스를 연결하면서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13b)의 경우 '당신의 뜻대로 친구들을 끌어들이지 말라'하여 의지와 친구를 연결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중도를 중심으로 의존, 공격, 근거를 살펴보았다. 비중을 근거로 하여 X, Y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영향을 받은 경우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문들은 이러한 경우를 나타낸다.

## 7) 영향

(14) a. The master shut the door on the sales man.

b. The theory has a great effect on my life.

위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가시적인 접촉과 추상적인 접촉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X 또는 Y가 영향을 주거나 받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전치사의 의미 중에서 주체 또는 객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전치사가 주관적으로 사용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14a)에서 ‘주인은 영업사원에게 문을 닫았다’는 표현 속에서 영업사원이 영향을 입었다고 판단이 되면, 결과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함께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주인과 영업사원과의 거래가 끝이 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14b)에서 ‘그 이론은 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하여 비가시적인 이론과 내 삶을 연결시키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영향으로 표현하고 있다.

X, Y의 추상적인 관계를 좀더 살펴보도록 하자.

(15) a. She turned her back on the man.

b. The gentle man smiled on the poor children.

이기동(1998, p. 291)과 김형경(2003, p. 24)에 따르면, (15a)의 경우 ‘그녀는 그 남자에게 등을 돌렸다’는 표현 속에서 물리적인 등의 접촉과 추상적인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접촉의 개념을 추상화 시킨 경우라 볼 수 있겠다. (15b)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신사는 불쌍한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었다’하여 미소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대상물인 아이들에게 비유적인 접촉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3.3 *on*의 관용적 표현

전치사 *on*의 사용에 있어 핵 의미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우 관용어구로 표현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핵 의미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16) a. The tall building is on fire.
- b. She goes on the air.
- c. The arts will be on show.

위의 예문들은 전치사 *on*의 핵 의미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a)의 경우 ‘그 큰 빌딩은 불타고 있다’하여, 건물이 불과 붙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접촉이라는 핵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6b)의 경우 ‘그녀는 방송에 출연 중이다’하여, 그녀가 방송중이라는 시간선상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6c)의 경우 ‘그 예술 작품들은 전시될 것이다’라는 미래의 시간과 작품들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예문들이 은유적 연결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시간의 진행이라는 뜻도 함께 표현하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17) a. This weekend they will be on duty.
- b. The electronic company is still on strike.
- c. Our air-force is on tactics.

d. Our professor is on trip to America.

위의 예문 역시 관용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나, 핵 의미에 가깝다고 여길 수 있는 예문들이다. (17a)의 경우 ‘이번 주말에 그들은 근무할 것이다’라는 미래의 진행을 표현하고 있다. (17b)의 경우 ‘그 전자 회사는 여전히 파업 중이다’라는 현재 상태의 진행을 표현하고 있으며, (17c)의 경우 ‘우리 공군이 작전중이다’라는 진행을 표현하고 있다. (17d)의 경우 ‘우리 교수님은 아메리카 여행 중이다’라는 진행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관용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이지만, 추상적인 의미로 볼 때 전치사 *on*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4 *on*의 부사적 용법

앞장에서 살펴본 용법은 전치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예를 가지고 살펴본 경우이므로, 이 장에서는 *on*의 부사적 사용 예를 살펴볼 것이다. *on*의 부사적 기능은 Sweet(1995)와 O’Dood(1998)등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먼저 부사적 용법이라는 용어부터 정의해보자. 전치사를 논의하면서 <X on Y>라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가정하고 살펴보았다. 여기서 Y는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문장을 형성했다. 그러나 부사적 용법에서는 Y가 생략되는 경우로서 전치사 *on*이 더 이상 전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부사적 용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동사구들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편의상 속어로 많이 암

기되어 왔지만, 이런 경우에도 유심히 살펴보면 핵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는 목적어가 생략되더라도 문맥상의 의미가 변하지 않고, 연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핵 의미는 계속해서 지니고 있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자.

### 1) 부사적 사용 1

(18) a. Put on your shirt.

b. Put your shirt on.

c. The D.J. put a classic record-disk on.

위의 예문들은 전치사 *on*이 목적어 없이 부사적 기능으로 사용된 경우이며,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도 연상할 수 있는 경우이다. (18a.b) 예문은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용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동사+전치사]의 구조에서 신정보는 후치하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18b)와 같은 경우는 설명을 위해 도입된 예이며, 이후의 예문도 부사적 용법의 설명을 위해 명사를 전치시키도록 한다. (18b)의 경우 ‘셔츠를 입어라’는 명령문이며, 의미적으로 신체와의 접촉을 나타내고 있다. (18c)의 경우 ‘그 D.J.는 전통 음악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on*의 대상은 오디오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경우 전치사의 목적어가 언급되지 않더라도 듣는 이나 읽는 이에게 혼돈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경우를 보도록 하자.

## 2) 부사적 사용 2

(19) a. Keep going on. You have no time to lose.

b. The detective chased the burglary on.

부사적으로 사용된 *on*이지만 여전히 동일한 핵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a)의 경우 ‘계속해서 가라.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계속의 의미를 가지면서 동작의 연결을 표현하고 있다. (19b)의 경우 ‘그 경찰은 계속해서 강도를 추적했다’는 반복과 지속적인 연결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20) a. The witness described the suspecter on and on.

b. The children in the kindergarten slept calmly on.

(20)은 지속적인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예문이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없지만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목적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한 예문이다. (20a)의 경우 ‘목격자는 용의자를 계속해서 묘사했다’ 이런 경우 전치사의 목적어를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문장을 망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따르는 듯 하다. 전치사의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해 주는 경우가 된다. (20b)의 경우 ‘유치원의 아이들은 고요하게 잠들어 있다’는 상태의 지속을 표현하고 있다. 동작이든 상태든 연결과 지속성의 의미로서 *on*이 사용되고 있는 예문이다.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다른 예문들을 추가로 보도록 하자.

### 3) 부사적 용법 3

(21) a. A leak in the boiler is on.

b. The audio is on and on.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에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연결의 대상이 다소 어려워 보이는 예문들이다. (21a)의 경우 ‘보일러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다.’는 보일러와 물을 연결하고 있다. (22b)의 경우 ‘오디오가 계속 돌고 있다’는 오디오의 상태를 표현하지만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레코드가 돌고 있는 상태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듯이 보인다.

*on*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른 부사적 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4) 부사적 용법 4

(22) a. The two cars crashed head on.

b. The ship slide on a rock.

위의 예문들은 의미를 유추하는데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쉬울 듯한 예문들이다. (22a)의 경우 ‘두 대의 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상태를 표현하며, 충돌의 상황을 *on*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 (22b)의 경우 ‘배가 미끄러져 암초에 부딪혔다’는 상태를 표현하며, 접촉의 면이 옆

면 이라는 것을 *on*을 사용하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상의 과정에서 *on*의 용법을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모든 예문에 사용된 *on*이 핵 의미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으며, 확장된 의미들도 순차적으로 핵 의미에서 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 4 장 *On*의 통사적 분석

### 4.1 목적어와의 관계

전치사 *on*은 기본적으로 타동성(transitiv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논항, 즉 목적어를 취한다. 내부 논항(internal argument)의 역할을 하는 명사구는 다시 관사의 유무에 따라 무관사 명사와 유관사 명사로 구별될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이 두 경우를 각각 외부 논항(external argument)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 4.1.1 유관사 명사보어

관사가 있는 명사가 전치사구의 내부 논항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전치사구의 구조로서 외부 논항의 유무에 따라 다시 <on Y>와 <X on Y>의 두 형태로 나눌 수 있다.

##### 1) 제자리 명사(noun in-situ)

먼저 전치사 *on*이 내부 논항만을 가지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절에서 내부 논항 목적어를 제자리 명사(noun in-situ)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4.1.2에서 논의할 전치사-명사 융합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전치사의 전형적인 목적어 기능만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23) a. on the tray                      b. on the street  
      c. on the continent                d. on the wall  
      e. on the tree                      f. on the ceiling  
      g. on the boat                     h. on his head  
      i. on their son                    j. on its own master

위에 예문들은 명사 논항이 관사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와 함께 *on*이 내부논항으로 취하는 명사에게 격을 부여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24) Case Filter

A lexically filled NP with no Case is blocked.

즉, (24)의 조건에 따라 전치사의 목적어는 격을 받아야 하는데 타동성의 전치사인 *on*이 내부논항 목적어에게 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이 된다.

다음의 수형도를 통해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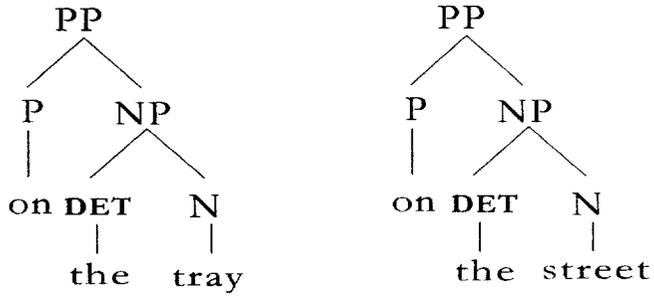


그림9. 제자리 명사

그림 9는 전치사 *on*과 내부논항 명사 *the tray*와 *the street*가 인접하고 따라서 *on*이 각각의 명사목적어에게 목적격을 부여하고 있다.

## 2) 외부논항을 취하는 경우

이제 전치사구를 내부와 외부논항을 모두 취하는 <X on Y>의 형태로 확장해보자.

- (25) a. a book on the desk  
 b. a scar on the face

(25a)는 ‘책 한 권이 책상 위에 있다’의 의미는 나타내며, (25b)는 ‘상처가 얼굴에 있다’의 의미가 된다.

(25a,b)의 예문을 수형도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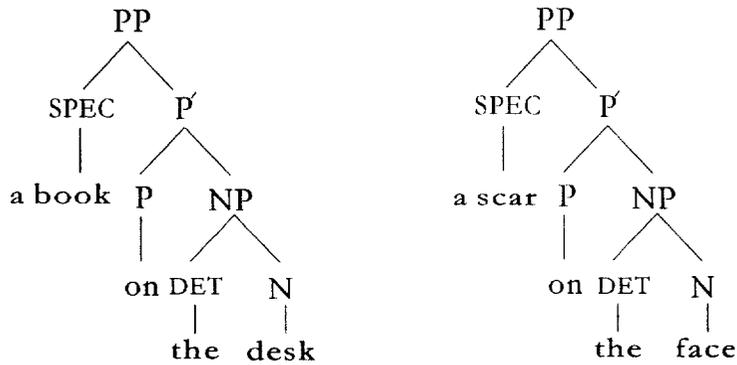


그림10. 논항을 포함한 계자리 명사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치사 *on*의 외부 논항인 *a book*을 Abney(1986), Travis(1989), 그리고 Stowell(1991)의 제안에 따라서 전치사의 지정어(*specifier*) 자리에 둔다. 따라서 위의 수형도를 통해 전치사구 자체가 Y라는 내부논항을 포함하고, 전치사 앞에 위치한 X 외부 논항까지 전치사구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통사적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 4.1.2 무관사 명사보어

전치사는 목적어로 명사를 취하고 있다. 기존문법에서도 [전치사+명사]를 묶어서 하나의 의미단위로 보고 있는데, 다음은 이러한 [전치사+명사]의 구조에서 명사가 핵융합(*incorporation*)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명사가 자리를 이동하여 동사에 결합되는 것을 말한다.

Baker(1988)는 명사가 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격 여과 조건에 의해 전치사가 명사에게 목적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사가 전치사에게 핵 융합하는 경우이다.



b. prey on tiger

(27a)는 ‘회사가 파업중이다’라는 해석이 되고, (27b)는 ‘호랑이가 먹이를 먹다’라는 해석이 된다. 위의 예문을 수형도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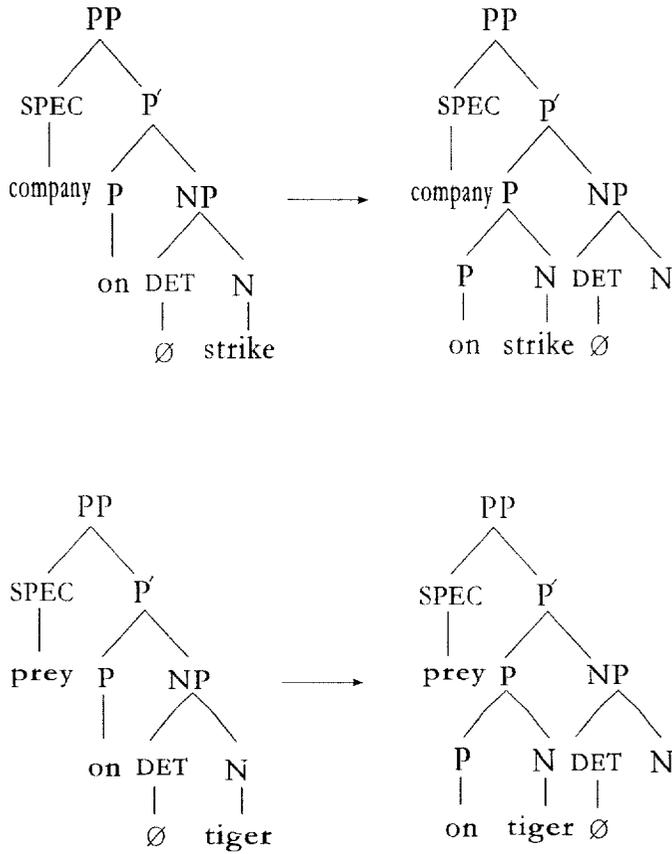


그림 12. 논항을 포함한 전치사구

위의 수형도는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을 모두 포함한 전치사구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내부논항의 핵인 명사가 전치사와 융합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27)에서 의미역은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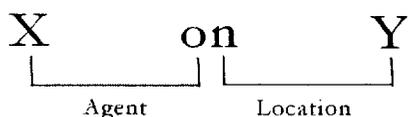


그림13. 전치사의 격부여

위의 그림 13에서 전치사 *on*은 X와 Y에게 행위자(Agent)와 장소(Location)의 의미역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전치사가 논항에게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전치사가 술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4.2 복합 전치사구

지금까지 우리는 단일 전치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의미와, 통사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전치사가 확장을 하여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 제시되는 예들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복합 전치사들이다. 복합 전치사는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지든 마지막 단어는 *of*, *with*, *for*, *from*, *to* 등의 전치사로 마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전치사구의 구조 역시 단일 전치사 구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구조적으로 복잡한 전치사 구를 Grosu(1997, pp. 726-729)의 재분석(reanalysis) 방법으로 마치 단일 전치사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4.2.1 *on*의 재분석

다음의 예문들은 복합전치사의 예이며, 통사적 구조분석이 복잡하여 통사적 재분석을 통하여 단일 전치사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두개 이상의 전치사가 사용되어 단일 전치사의 의미만으로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으나, 통사적 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28) a. on the staff of the army  
b. on a trip to America  
c. on a journey to Europe  
d. on account of rain  
e. on top of st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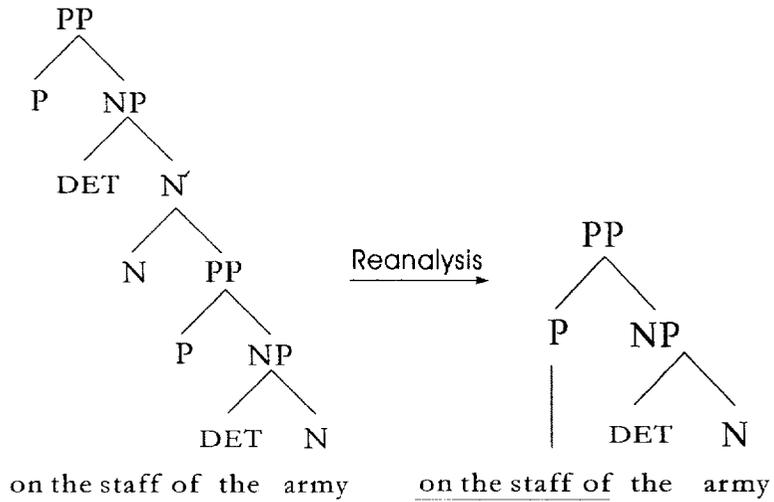


그림 14. 전치사의 재분석

위의 예문들은 하나의 전치사구 내에 두개 이상의 전치사가 사용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통사적 재분석을 통하여 그 구조가 간략화 될 수 있는 예문들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격 부여자로서의 전치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4장에서 소개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 같다. 우선 각각의 예문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풀어 보도록 하자.

(29) a. on the staff of the army

b. on a trip to America

위의 예문에서 수식어구로서의 해석은 이 장에서는 의미가 없을 듯하다. 전치사구 내에서 문장을 형성한 듯이 해석을 하면, (29a)와 같은 경우 ‘군의 참모진들이 on의 상태에 있다’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29b)의 경우 ‘미국으로의 여행이 *on*의 상태에 있다’는 전치사 *on*의 해석을 또 한번 해주어야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가 전치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 (30) a. on a journey to Europe
- b. on account of rain
- c. on top of stair

위의 예문들 역시 앞서 기술했듯이 전치사 *on*의 의미를 첨가하여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30a)의 경우 ‘유럽으로의 여행이 *on*의 상태에 있다’가 될 것이고 (30b,c)도 동일한 형태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합전치사로 사용된 경우에도 각각의 전치사의 핵 의미는 변질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함께 사용된 전치사의 특성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의미의 확장이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전치사의 의미적 역할에서는 변질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이제 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보자. 먼저 그림 15를 통하여 격 부여의 형태를 파악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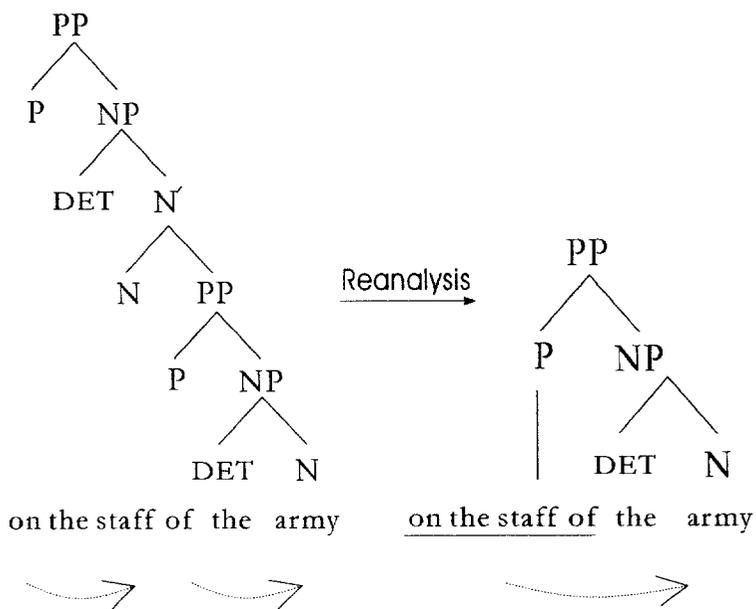


그림15. 복합 전치사의 격 부여

위의 격 부여의 과정에서 전치사가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과정에서 격 여과(Case-Filter)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인접조건(Adjacent Condition) 및 의미역 기준( $\theta$ -criterion)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재분석화 된 이후에는 재분석되기 전의 모습과 달리 전치사구 자체가 단일 전치사처럼 취급되기 때문이다.

#### 4.2.2 on의 의미역

4.2.1장에서 우리는 복합 전치사의 의미역 부여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점을 남기는 부분은 [전치사+명사]와 [명사+전치사+명사]의 두 가지 형태의 전치사구가 복합 전치사로 사용된 경우

의미역 부여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더불어 전치사가 동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알아보려 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 (31) a. on a journey to Europe
- b. on account of rain
- c. on top of stair

(31a)의 경우 ‘유럽으로의 여행이 *on*의 상태에 있다’고 앞서 밝혔다. 이런 해석의 경우 *on* <X to Y>의 구조로 전치사 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구조는 심층구조(deep structure)에서 재분석되기 전에 의미역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on*이 술어로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 구조는 V <agent, theme>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전치사+명사]의 구조에서 *on fire*와 같은 경우 *on* <theme>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 [명사+전치사+명사]의 구조에서 *a book on the desk* 와 같은 경우 *on* <agent, location>의 구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논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전치사는 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32) She put her coat on the table.

(33) put <she, her coat, on the table>  
      agent theme location

(33)은 *on*의 논항구조가 동사의 논항구조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이것을 *on*의 위치에서 보게 되면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34) *on* <her coat, table>  
agent location

(34)에서 *agent*와 *location*의 논항을 가지는 *on*을 볼 수 있다. 즉, 동사처럼 논항을 가지는 *on*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35)과 같이 나타낼 경우, (36)로 나타난다.

(35) She put on her coat.

(36) put <she, on her coat>  
agent theme

(35)의 경우 *location*의 논항이 없으므로 (36)과 같은 논항구조가 전개된다. 이런 구조에서 *on*은 (37)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37) *on* <her coat>  
theme

(37)에서 *on*은 *theme* 하나의 논항을 가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사와 *on*이 의미역 부여과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치사에 있어 행위자는 동사와 달리 논항을 직접 취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전치사가 행위자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동사와 전치사의 의미역 부여 과정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 4.3 동사와 *on*의 관계

지금까지 우리는 전치사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구조적인 분석을 시도해왔다. 이 장에서는 전치사를 전치사구 내의 역할만하는 품사가 아닌 문장에서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분석을 시도한다. 다시 말해서, 앞서 의미역 부여자로 전치사를 가정 했듯이 의미역 부여자로서의 전치사가 동사와 결합한 경우 여전히 의미역 부여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동사에게 완전히 그러한 기능을 넘겨주게 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려고 한다. 전체적으로 문장을 장악하고 있는 동사와의 결합이기 때문에 전치사 역시 동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역으로 동사도 전치사로부터 그 영향을 받는 것이다. 구절 동사로 자리한 전치사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일 것이다. 이 절에서는 동사가 격을 부여하는 과정과 전치사가 동사와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4.3.1 동사의 격 부여

동사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동사를 중심으로 위치한 논항에 각각 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논항들은 동사 특성의 만족 여부에

따라 문법성이 결정된다. 이 절에서는 동사의 격 부여 역할에 전치사가 관계되는지, 그리고 관여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38) 동사의 논항

- a. She wears her uniform.
- b. She puts on her uniform.
- c. She puts her uniform on.

위의 예문들은 모두가 동일한 뜻을 표현하고 있다. 즉, ‘그녀는 제복을 입는다’를 표현하는 문장이며, 문어체로서의 표현방법만이 달리 쓰이고 있다. (38a) 예문은 일반 동사로서 문장을 서술해 가는 과정이며, (38b)와 (38c)는 동사와 전치사를 결합하여 구절 동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한 경우 동사와 전치사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자. 동사 *put*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논항을 가지게 된다.

(39) *put* <she, on her uniform>

두 개의 논항을 가지고 동사 *put*이 문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동사 홀로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40)과 같은

형태로 문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치사 *on*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40) put on <she, her uniform>

이는 동사 홀로 논항을 가지더라도 의미로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서 표현한 전치사 역시 격 부여자로서 표현 한다면 동사와 같은 구조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문을 추가로 살펴보자.

(41) a. She puts a book on the shelf.

b. She puts the car in the carport.

위의 예문은 논항을 가진 전치사구로 표현된 것이다. 우선 동사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42) a. put <she, a book, on the shelf>

b. put <she, the car, in the carport>

위의 예문을 통해 우리는 동일한 동사 *put*을 사용하고 있는 예문이지만 논항의 구조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38b,c)와 (40)는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동사와 전치사가 함께 격 부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그와 함께 의미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받게 되는데, 구절동사가 동사와 전치사의 의미적, 통사적 특성이 규칙성을 가지고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숙어로 가정하고 암기해야만 했던 많은 어휘들이 특정한 공통적 성향을 띄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사와 전치사의 의미적 부분에서의 결합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통사적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43) a. She puts on her uniform.

b. She puts her uniform on.

우리는 앞장에서 전치사의 전치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을 확인했으며, 그 용례도 살펴보았다. 전치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경우, 전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부사적으로 사용된다고 이미 밝혔다. (43b)의 예문은 이러한 전치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품사가 전이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4.3.2 *on*과 접사

지금까지 우리는 *on*을 크게 전치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으로 분류하고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장에서는 *on*의 용법을 전치사적 용법과 접사

(particle)의 용법으로 분류하여 통사적 관점으로 살펴보려 한다. 우선 상기에 사용된 예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 (44) a. She puts on her uniform.  
 b. She puts her uniform on.

앞서 우리는 *on*을 (44a)와 같은 경우 전치사적 용법으로 보았고, (44b)와 같은 경우를 부사적 용법으로 기술하였다. 이 절에서는 *on*을 더 이상 전치사로 보지 않고 접사로 가정하고 관찰하려 한다. *on*을 접사로 가정하고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 puts on <she, her uniform>

이상과 같은 구조에서 *on*은 동사와 결합하여, 마치 동사의 일부처럼 문장에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더 이상 전치사가 아니라는 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치사와 동사가 결합하여 문장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44a)의 도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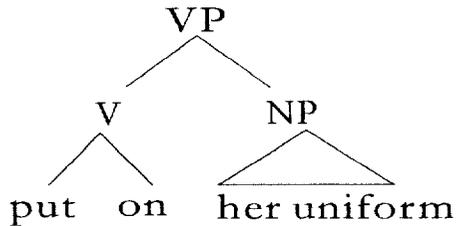


그림16. 접사로서의 *on* 구조

(44b)의 도출을 위하여 Johnson(1991, pp. 577-636)의 분석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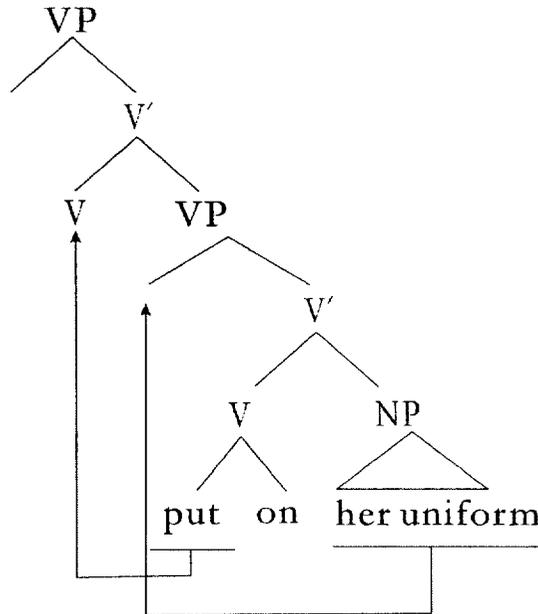


그림17. 동사와 명사의 이동

그림 17에서 보듯이 (44a)에서 동사 *put*은 V로 이동하고 목적어 명사 *her uniform*은 하위 V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여 (44b)의 어순이 도출된다. 이와 같이 접사로 붙 경우 전치사의 의미역 부여자로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에 있어 조금의 도움은 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전치사 앞에 선행하는 외부 논항의 자리에 어떤 성질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다음을 보도록 하자.

- (46) a. She puts on her uniform.
- b. She puts a book on the shelf.

상기의 예문은 동일한 동사 *put*을 사용하고 있지만, 구조는 다른 경우가 된다.

- (47) a. put on <she, her uniform>  
b. put <she, a book, on the shelf>

이러한 차이는 *on*에 선행하는 자리에 동사 또는 명사가 자리하는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된다. 결론적으로 전치사는 선행하는 논항구조에 있어 <X on Y>에서 X의 자리에 명사가 위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동사와 차별되는 큰 구분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 제 5장 결 론

본 논문은 영어 전치사 *on*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치사 *on*의 핵 의미를 ‘접촉’과 ‘근접’으로 설정 하였으며, 이 핵 의미가 어떻게 확대되어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에게 지각능력과 인지능력이 있어서 전치사의 다양한 활용에서 그 핵 의미가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

전치사 *on*의 의미확대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on*의 활용을 먼저 가시성의 여부에 따라 가시적인 관계와 추상적인 관계로 나누었다. 즉, *on*과 그 논항과의 관계가 공간상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시가, 이유, 원인, 영향과 같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러한 분류는 다시 관용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으로 구분되었다. 의미 분석 과정에서 본 연구는 전치사 *on*의 핵 의미가 다양한 활용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제안하였다.

*on*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통사적 구조분석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전치사구의 핵인 전치사는 의무적으로 내부 논항을 취하고 그 논항에게 격과 의미역을 부여한다. 또한 전치사는 지정어 자리에 선택적으로 외부 논항을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동사구의 핵인 동사가 지정어 자리에 주어의 외부 논항으로 취하고 그 주어에게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 더 나아가 동사구 속에 전치사구가 포함되는 경우, 전치사가 동사에 병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전자의 경우는 핵 이동(head movement)에 의한 통사적 융합(incorporation)으로 설명되었다. 전치사 *on*의 복합 전치사구 기능은 재분

석(reanalysis)으로 설명 되었는데, 복합 전치사구가 재분석을 겪게 되면 융합과 달리 내부 구조가 단순화 되어 단일 전치사구와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전치사 *on*의 확대 의미는 통사적 융합과 재분석 과정에서 도출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전치사 *on*의 여러 활용을 의미와 통사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확대 의미 속에서 전치사 *on*의 고유한 핵 의미인 ‘접촉’과 ‘근접’의 개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의미 확대과정이 통사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김형경. 2003. *전치사 on의 의미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이기동. 1998. *영어 전치사 연구: 의미와 용법*. 서울: 교문사.
- 조선영. 2002. *영어 전치사 on의 의미 분석과 교수학습에의 적용*.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Abney, S. 1986. "Functional Elements and Licensing", paper presented at *GLOW*, Barcelona.
- Akmajian, A. and F. Heny. 1975. *An Introduction to 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Baker, M. 1985.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Mass: MIT Press.
- Bennett, D. C. 1975. "Spatial and Temporal Uses of English Prepositions: An Essay in Stratification Semantics", *Longman Linguistics Library* 17. London: Longman.
- Bolinger, D. 1976. *Meaning and Form*. London: Longman.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Emonds, R. 1976.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New York: Academy Press.
- Erteschik-Shir, N. 1976. "On Extraction from Noun Phrase (picture

- noun phrases)", in *Theory of Markedness In Generative Grammar*. eds. Belletti, A. et al. Scuola Normale Superior, Pisa, pp. 147-170.
- Flavell, J. H. 1977. *Cognitive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Jall Inc.
- Grosu, A. 1997. "Is make the claim A complex Lexical Item?", *Linguistic Inquiry* 8, pp. 726-729.
- Heaton, J. B. 1965. *Prepositions and Adverbial Particles*. London: Longman.
- Herskovits, A. 1986. *Space and the Prepositions in English*. Ph.D. dissertation, MIT.
- Hornstein, N. and A Weinberg. 1981. "Case Theory and Preposition Stranding", *Linguistic Inquiry* 12, pp. 55-91.
- Jackendoff, R. 1977. *X-Bar Syntax: A Study of Phrase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Jespersen, O.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Johnson, K. 1991. "Object position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9, pp. 577-636.
- Langacker, R. W.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Descriptive Application*. California University Press.
- Li, Y. 1990. *X<sup>0</sup>-Binding and Verb Incorporation*. Ph.D. dissertation. MIT.

- Miller, G. A. and P. N. Johnson-Laird, 1976. *Language and Percep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O'Dood. M. E. 1998. *Prepositions and Particles in English: a discourse-functional Account*.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S-H. 2004. "Coordination: the same size fits well",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6, pp. 377-389, MIT Press.
- Radford, A. 1981.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ford, A. 2003. *Minimalist Syntax and The Syntax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ch, E. 1978.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New York: Halsted Press.
- Sweet, E. 1995. *A Course on Words*. New York: Halsted Press.
-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Structure*. Ph.D. dissertation. MIT.
- Stowell, T. 1989. *Alternative Conceptions of Phrase Structure*. Ph.D. dissertation. MIT.
- Travis, L, 1991. *Principle and Parameter in Compa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